



성명서

For immediate release
2018 년 3 월 2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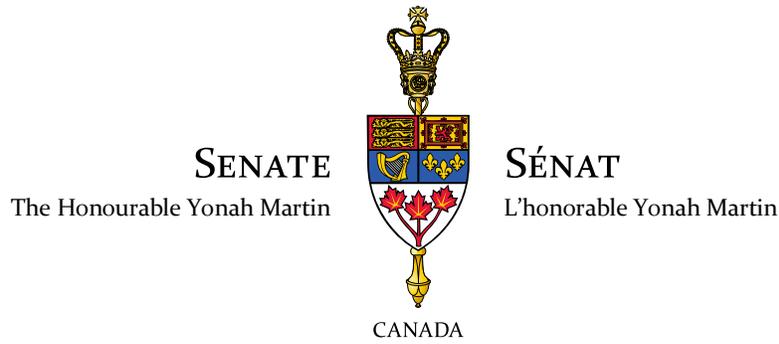
성명서: 2018 자유당 예산안의 우려와 부전

오타와, 온타리오 주 – 연아마틴 상원의원은 자유당이 하원의사당에서 발의한 “평등 + 성장: 강한 중산층” 예산안에 대해 깊은 걱정을 표했다.

“현 정부는 2018 자유당 예산안을 통해 무분별한 과소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2018-19 년 회계 연도에는 재정적자 \$180 억불이 예상되며, 균형예산안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. 자유당 정부는 재정적자의 짐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떠맡기고 있습니다.

“2018 예산안은 실망스럽게도 많은 캐나다인들과 우리 가족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. 이 예산안은 참전용사님들과 농업,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여 캐나다경제를 뒷바침하는 중소기업과 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. 우려스럽게도 현 정부는 무모한 과소비를 상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캐나다 가족들의 세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.

“현 정부는 전 정부의 튼튼한 경제와 흑자재정을 이어받았습니다. 안타깝게도 세번째 예산안 이후, 자유당 정부의 경제계획과 적자예산은 향후 27 년까지 \$4,500 억불의 추가적인 국가부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

“이 예산안은 튼튼한 캐나다 경제와 세계 경제를 통해 캐나다내 가족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. 대신에 현 정부는 90 퍼센트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.”

-30-

Contact Information:

Office of the Hon. Yonah Martin

martin@sen.parl.gc.ca

613-947-4078